



대한민국 융복합혁신상 대상

삼성전자(주)
음성 기반 사용자 맞춤형 가전 경험
25년 연속 수상

음성 기반 사용자 맞춤형 가전 경험

음성으로 완성하는 AI 홈,

멀티 음성 기반으로 고도화된 사용자 맞춤 경험



CHECK POINT

- ✓ 자연어 기반 대화형 빅스비(Bixby)로 자연스럽게 편리한 가전과의 소통
- ✓ 제품 관리부터 고장까지 음성으로 바로 해결 가능한 Bixby Device Q&A
- ✓ 가전 최초 목소리 인식으로 최대 6개 계정별 개인 맞춤 경험
- ✓ 목소리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LCD 접근성 기능



대화하듯 편리한 음성 제어 가능한 ‘빅스비(Bixby)’

삼성전자는 업그레이드된 AI 음성 비서 ‘빅스비’를 적용한 ‘Bespoke AI 가전’을 통해 사용자에게 더욱 편리한 음성 제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빅스비는 자연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말을 이해하고 맥락을 파악해 명령을 수행하는 고도화된 음성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한 문장에 여러 명령을 담은 멀티 인텐트(Multi-intent) ▲대화의 흐름을 이어가는 멀티 턴(Multi-turn) ▲기기 관련 정보 문의 응답 확인 등 다양한 기능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은 26℃로 맞추고, 오후 5시까지 세탁을 끝내줘”라고 말하면 에어컨과 세탁기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고, “이번 달 세탁기가 얼마나 에너지를 아꼈는지 알려줘”라고 말한 후 “그럼 전기요금은?”이라고 이어 말해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답변한다. 덕분에 사용자는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 가전을 제어할 수 있어 간편한 스마트홈 경험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빅스비는 제품 매뉴얼과 사용법까지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더불어 책자나 인터넷 검색 없이 필요한 정보를 곧바로 들을 수 있어 매우 실용적이다. “에어컨 필터 어떻게 교체해?”와 같이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면 바로 해결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한층 더 스마트해진 사용자 맞춤형 음성 서비스

삼성은 지난 3월 ‘웰컴 투 Bespoke AI’ 미디어데이에서 가족 구성원별로 목소리를 인식하는 ‘보이스 ID’ 기능도 공개했다. 동일한 가정에서 사용하는 여러 사용자를 구분해 보다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용자가 냉장고 앞에서 “빅스비, 내 일정 알려줘” 또는 “내 사진 보여줘”라고 말하면, 빅스비는 음성 주인을 인식해 해당 사용자의 일정이나 갤러리 속 사진을 자동으로 불러와 보여준다. 또한 “내 폰 찾아줘”라고 말하면 해당 사용자의 스마트폰에서 벨 소리가 울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내 폰 찾기’ 기능도 함께 제공된다.

한편, 스마트폰에서 설정한 접근성 기능이 가전제품에도 자동으로 연동되는 ‘접근성 설정 동기화’ 기능 역시 제공되어, 모든 사용자에게 더욱 포용적인 사용 환경을 만들어 준다. 보이스 ID 기능은 연내 Bespoke AI 냉장고부터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CEO INTERVIEW

김철기 삼성전자(주) DA 사업부장(부사장)

삼성전자가 융복합혁신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 더 편리한 일상을 제공하고자 노력해 온 임직원의 땀과 열정의 결과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가사의 불편과 수고를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Bespoke AI 가전을 선보이며 ‘AI 홈(Home)’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각 가전이 AI로 진화한 것은 물론, 전체 기기들이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사용자에게 알아서 맞춰주는 진정한 AI 홈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가전에도 모바일과 같은 스크린을 탑재하고, AI 음성비서 빅스비(Bixby)로 사람과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말로 가전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전사용 경험의 질도 크게 높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반세기 이상 지속해 온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람을 위한 변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